

JLL Korea Hotels & Hospitality

2025 | 2026

Korean Hotel Investment Outlook

한국 호텔 투자시장 전망



2025 | 2026

한국 호텔 투자시장 전망

한국의 호텔 시장은 안정적인 관광 수요, 제한적인 공급, 우수한 운영 실적 및 활발한 투자 환경 등 견고한 기반을 유지하며 2025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인해 관광 및 호텔 시장 실적이 다소 부진했으나, 2025년 하반기까지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JLL 호텔팀에서 발간한 본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2025년 국내 호텔 투자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트렌드와 산업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함.



Demand

일시적인 역풍을 딛고
코로나 이전 수치로 회복되는 관광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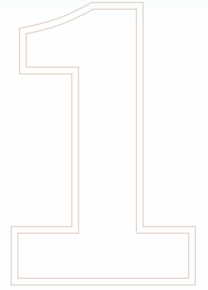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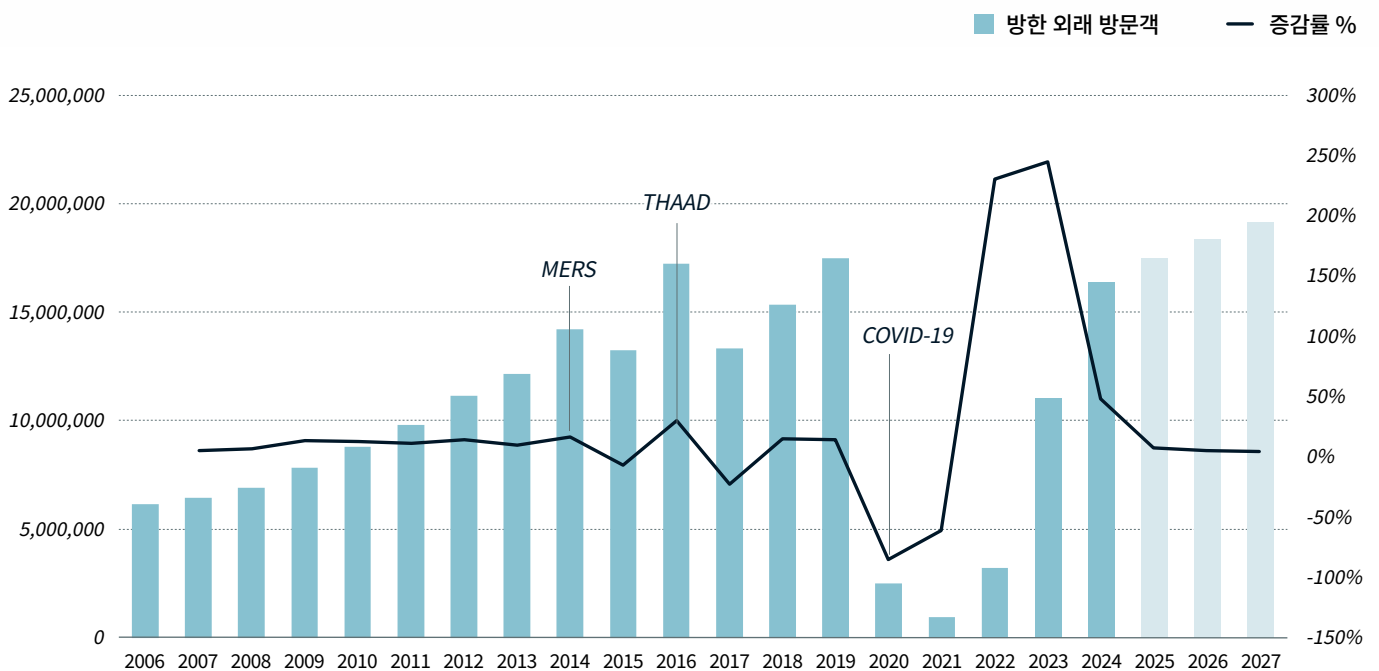


figure 1A 연도별 방한 관광객 추이



출처: JLL,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 방문객의 약 37% 이상이 "한류"를 주요 방문 동기로 꼽을 만큼, 한류의 글로벌 인지도와 수요는 방한 시장의 주요 방문 목적으로 자리잡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2024년 방한 관광 시장은 대체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약 1,63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함. 다만, ❶ 중국 관광시장의 더딘 회복세로 인한 국내 인바운드 방문객 감소와 ❷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인해 2024년 방한 외국인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치의 약 93.5% 수준에 머문 것으로 관찰됨.

- ① 중국은 그동안 방한시장의 최대 기여국이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감소하며 2019년 34.4%에서 28.1%까지 위축되어가는 모습이 관찰됨. 2024년 중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27.9% 증가한 460만 명을 기록했지만, 이는 여전히 2019년 방문객 수준의 7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감소세는 중국 경제 침체와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다른 아시아 시장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9월부터 중국 방문객 수가 월별로 감소하기 시작해 11월에는 전월 대비 24%, 2019년 동기 대비 3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 ② 한편,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정치적 및 사회적 불안감은 연말에 계획되어 있던 다양한 정치, 경제 및 문화 행사를 연기 및 무산시킴. 이에 개인과 단체 상관없이 많은 국제 방문객들의 방문 일정이 취소되었으며, 일시적이거나,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를 포함한 15개국의 여행 경보 대상국으로 지정되며 2024년 12월 방문객 수는 127만 명에 그쳐, 2019년 12월의 145만 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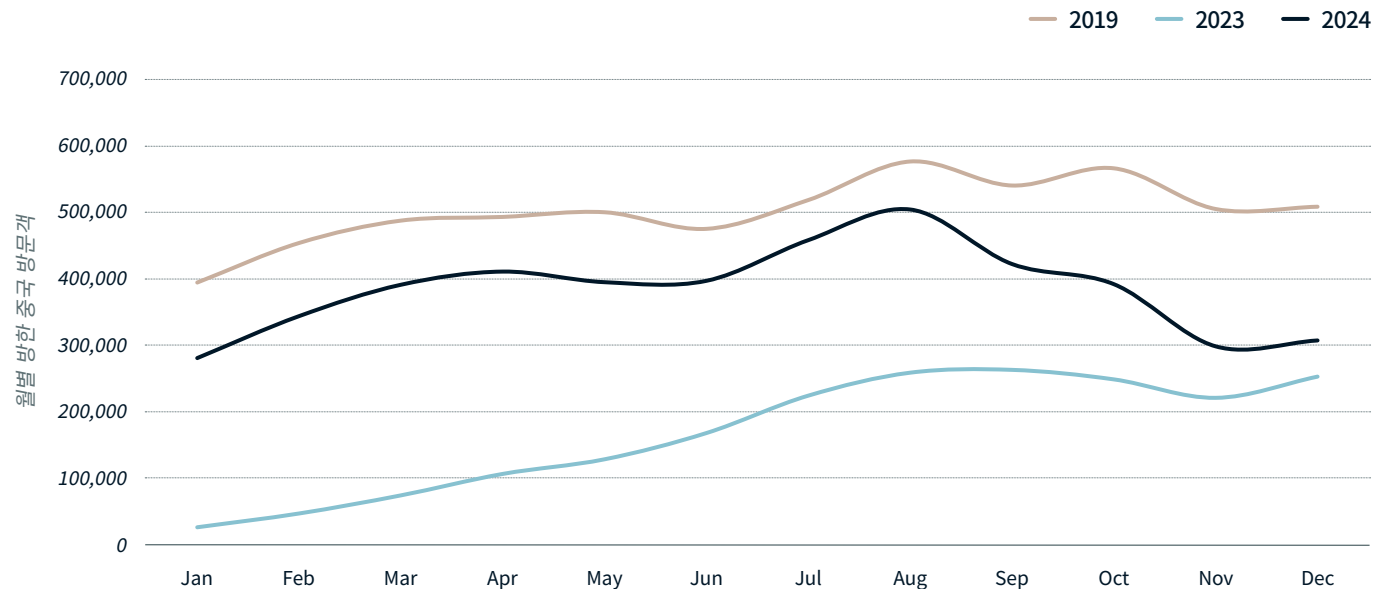
2024년 방한객 수는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12월 불안한 국내 정세로 인해 관광 수요의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해외 관광객 유입량은 2018년 대비 6.7%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 내 한국 시장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 및 관광 시장의 견고한 회복세를 보여줌.

Demand

방한 시장의
다변화

팬데믹 이후,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한국 방문이 활성화되며 과거 주요 방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24년 기준, 주요 방한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 수는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반면, 미국과 대만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관측됨.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방문 상위 10개국 외 기타 국가들의 방문객 수가 약 24.3% 급증한 것이며, 이 중 인도 관광객이 약 43.9%(약 17.7만 명 증가)의 성장률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임.

figure 1B 월별 방한 중국 방문객 추이



출처: JLL,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5 | 2026
주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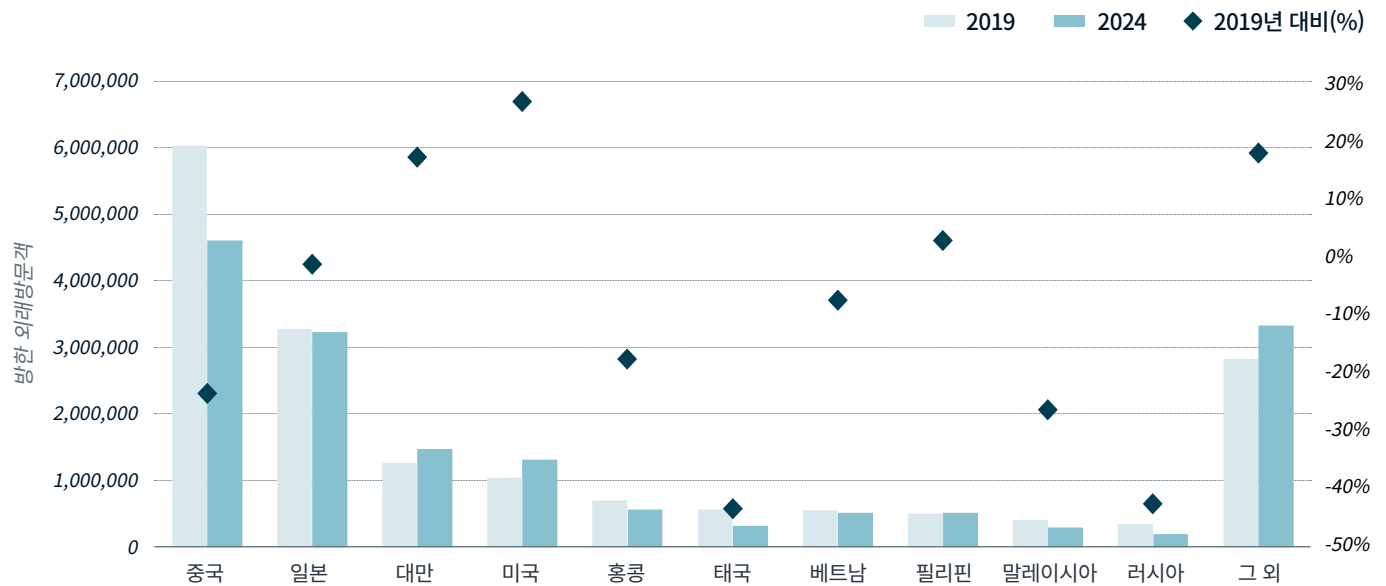
방한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에는 상승폭이 과거 최고치인 1,750만 명 수준에 근접하거나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과거 주요 방문 국가인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방문객은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본토로부터의 방문은 보다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방한 국가들의 다양화는 감소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일정 부분 보충할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대규모 방문객 수를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측됨.

위축된 국내 시장의 회복세

국내 수요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여행 횟수, 일수, 지출 등 모든 관련 지표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그러나, 최근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2024년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 대비 약 12.3 pps (출처: 한국은행), 그리고 전년대비 11.4 pps 급감 하였으며, 국내소비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호텔 요금이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내수 회복의 둔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figure 1C 2019년 vs 2024년 주요 국가별 입국 현황



출처: JLL,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년 연말에 발생한 거시적 불확실성은 2025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 중반까지는 계절적 요인과 원화 약세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됨.

EDC Korea, APEC Korea, 세계경제학자대회와 같은 주요 국제 행사들을 통해 MICE 시장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Supply

우호적인 수요-공급 환경에서 프리미엄 숙박시설의 공급 사례 증가



팬데믹의 여파로 서울의 여러 4성급 및 5성급 호텔들이 폐업하면서 약 4,000개의 객실이 공급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 호텔 시장은 우호적인 수요-공급 시장이 조성됨. 향후 몇 년간 신규 오픈 계획 또한 제한적인만큼 이 환경이 중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24-2025년 수도권 지역 공급 예정 호텔

- 2024년 서울에 새로 개관한 글로벌 브랜드 호텔은 더 링크 서울, 트리뷰트 포트폴리오(141실)와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마곡(400실)으로 신규 공급량이 제한적이었으나, 2022년 폐업한 티마크그랜드 호텔이 보코 명동(576실)으로 재개관함에 따라 서울시장 내 1,117실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서울 위성도시에서는 7월에 AC 호텔 금정(191실)이 개관한 것으로 나타남.
- 삼성동에 위치한 인터콘티넨탈 코엑스(656실)는 작년 6월 운영 종료 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쳐 2025년 4분기에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로 개관할 예정임. 그 외에는 풀만 앰배서더 구의(182실)과 하얏트 플레이스 판교(204실)가 2025년 오픈을 앞두고 있어 신규 공급 파이프라인은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2024-2025년 비수도권 지역 공급 예정 호텔

- 2024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형 리조트 및 생활형숙박시설들이 개관하였으며, 향후 몇 년간 대규모 숙박시설들이 개관할 예정임. 동해안 지역에서는 카시아 속초(674실)와 홈 속초(150실)가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 운영을 시작했으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휴양형 콘도미니엄 및 분양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 형태의 숙박시설들이 개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됨. 부산에서는 L7 해운대(383실), 소노문 해운대(237실), 그리고 몇몇 국내 브랜드 산하의 숙박시설이 개관함.

2024년에는 서울의 4성급 및 5성급 호텔 공급이 전체 관광 숙박시설의 30%를 차지하며, 고급화 추세를 보임. 이러한 고급 숙박시설 개발 트렌드는 2030년까지 2,800실 이상의 럭셔리 호텔 공급과 함께 지속될 전망이다. 신규 공급 예정인 럭셔리 호텔들은 도심(CBD)과 강남권(GBD) 등 주요 권역 뿐만 아니라 용산, 성수, 잠실 등 신흥 부도심에도 분산되어 있음. 주요 신규 공급의 경우 럭셔리 호텔로는 메종 델라노(2027년), 로즈우드 용산(2028년), 파라다이스 서울(2028년)등이 예정되어 있음.

다만, 현재 개발 예정에 있는 호텔들은 프로젝트의 복합적인 특성들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음.

1. 재개발 부지에 계획된 프로젝트

(예: 부영 소공동 및 독섬 개발, 파라다이스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 웨라톤 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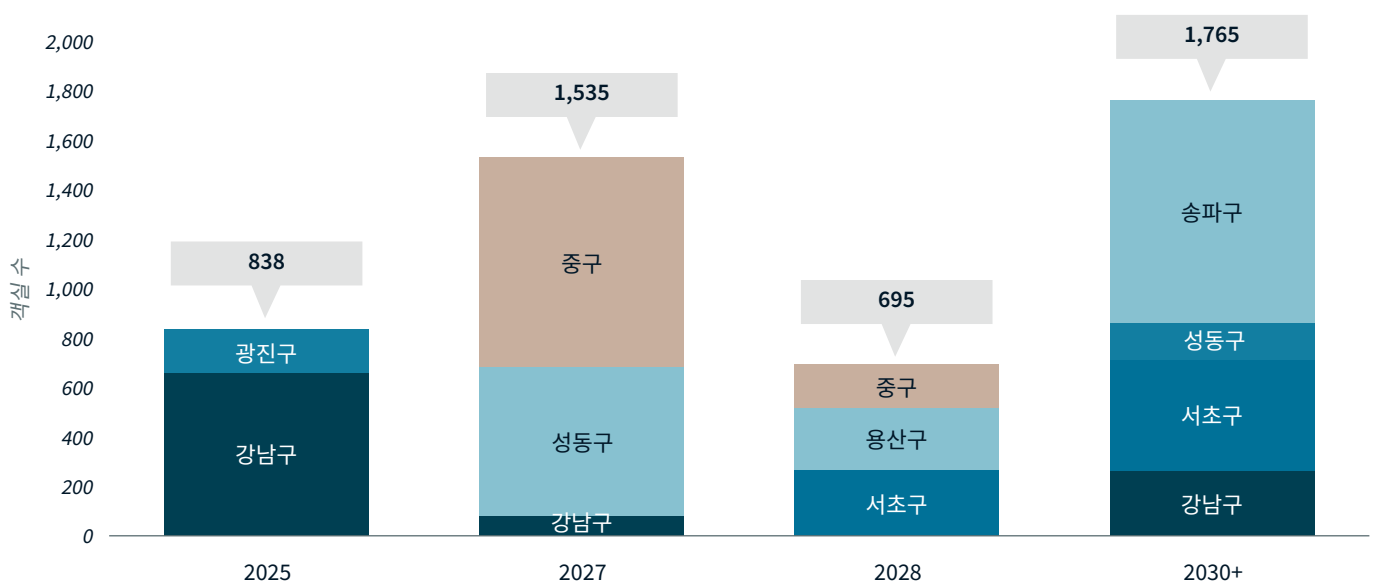
2. 복합단지 개발의 일부로 계획된 프로젝트

(예: 로즈우드 용산, 삼표 성수 복합단지, GBC 복합단지, 서울역 복합단지)

그러므로 향후 럭셔리 호텔의 신규 공급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호텔들의 대량 신규 공급과 달리, 서울의 중저가 및 비즈니스 호텔의 신규 공급 물량은 제한적인 것으로 관측됨. 팬데믹 이후 급격히 상승한 공사비로 인해 다수의 개발자들은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괄목할 만한 ADR 성장을 보이고 있는 럭셔리 호텔 개발 및 복합 개발 사업을 주력으로 진행 중임. 주목할 만한 2025년 신규 비즈니스 호텔 공급으로는 오피스 빌딩을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트래블로지 강남이 있으며, 2025년 4분기에 개관 예정임.

figure 2A 연도별 서울 내 개관 예정 럭셔리 호텔



출처: JLL

Supply

2025 |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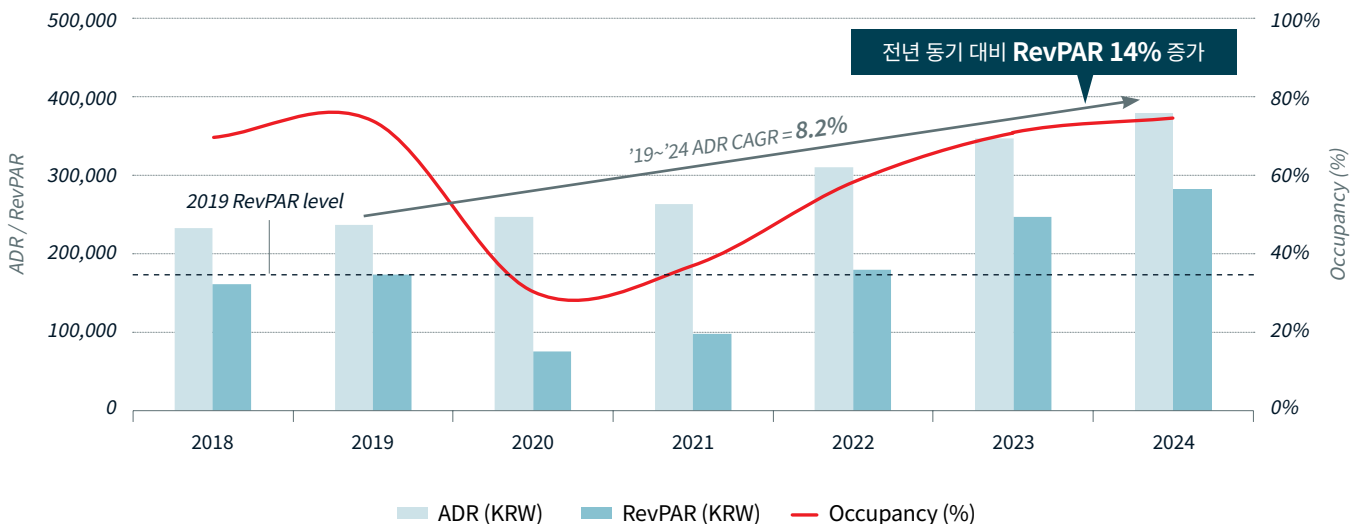
주요 전망

현재 계획된 다수의 신규 럭셔리 호텔 공급으로 인해 향후 5성급 호텔들 간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2027년 이후 공급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2-3년간은 럭셔리 호텔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며 운영실적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개발 예정 호텔들이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의 일부인 만큼, 프로젝트의 복잡한 특성과 높은 개발 비용, 그리고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변동성은 국내 소비자 신뢰도 하락의 영향을 받는 지방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한편, 관광 산업의 회복세에 힘입어 기존 호텔 시설 개선 및 비숙박시설의 호텔 전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집중되고 있음. 팬데믹으로 인한 호텔의 오피스 전환 사례는 2023년 1분기 폐업한 뉴국제 호텔 이후로 감소 추세이며, 2024년에는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이 오피스, 리테일, 및 복합건물 등 비숙박시설의 호텔 전환 가능성을 검토 중임. 기존 건물을 호텔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해당 건물이 호텔 특유의 동선, 구조 및 공조 시스템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figure 3A-1 서울 럭셔리 (Luxury & Upper Upscale) 호텔시장 주요성과지표



출처: JLL, STR

Performance

운영실적의 안정적인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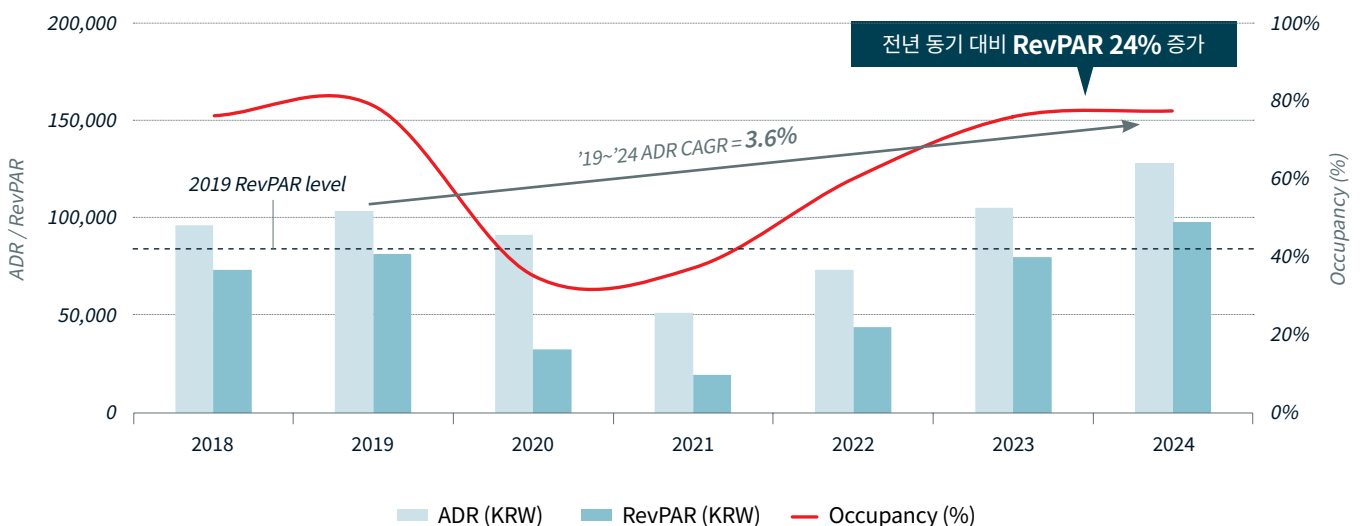
수도권

한국 호텔 시장은 2024년에 괄목할만한 운영실적을 기록함. 서울은 APAC 주요 도시 중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성장폭이 중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나 운영 실적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의 럭셔리 호텔 시장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ADR은 37.8만 원(2019년 대비 60.2% 상승)을 기록했고 객실점유율은 74.2%(2019년 대비 80%p 상승)를 달성함. RevPAR은 2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 성장했으며 2019년 대비 62% 증가한 인상적인 수치를 기록함. 서울의 럭셔리 호텔들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23년(37%)에 비해 성장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됨.

서울의 중저가 호텔 시장 또한 2024년에 높은 회복세를 보임, ADR은 12.7만 원(2019년 대비 23.6% 상승)을 기록했고 객실점유율은 78.6%(2019년 대비 1.5%p 하락)를 달성함. RevPAR은 높은 ADR 상승률을 기반으로 9.8만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3.4% 성장했으며, 2019년 대비 21.3% 증가함.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RevPAR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며 중저가 호텔 시장의 완전한 회복 및 수요 증감을 기록함.

figure 3A-2 서울 중저가 (Midscale & Economy) 호텔시장 주요성과지표



출처: JLL, STR

Performance

비수도권

반면, 부산과 제주와 같은 지방 목적지는 2024년에는 보다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함. 부산의 럭셔리 호텔 시장의 RevPAR 약 12.8% 전년 대비 성장률을, 중저가 호텔 시장은 5.7% 성장률을 기록함. ADR의 상승세가 RevPAR의 성장을 주도한 수도권내 호텔 시장과 달리, 부산의 회복은 럭셔리와 중저가 시장 모두에서 객실점유율 주도로 이루어짐.

계엄령의 영향

2024년 4분기부터 지속된 불안정한 정세는 외국인 방문객 수와 국내 소비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며 호텔 객실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STR 데이터에 따르면, 12월은 2024년 중 유일하게 전년 동월(2023년 12월) 대비 객실점유율이 감소한 달이었음. 또한 정부 기관이 더 집중된 서울 북부 지역에서 객실점유율 하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서울의 주요 관광지 인근 호텔들은 빠르게 운영실적을 회복하였으나, 신규 개장 호텔들과 MICE 수요에 의존하는 호텔들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약화된 소비자 신뢰도는 F&B 실적에도 반영되어, 많은 호텔들이 연간 F&B 매출이 5% ~ 10% 감소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관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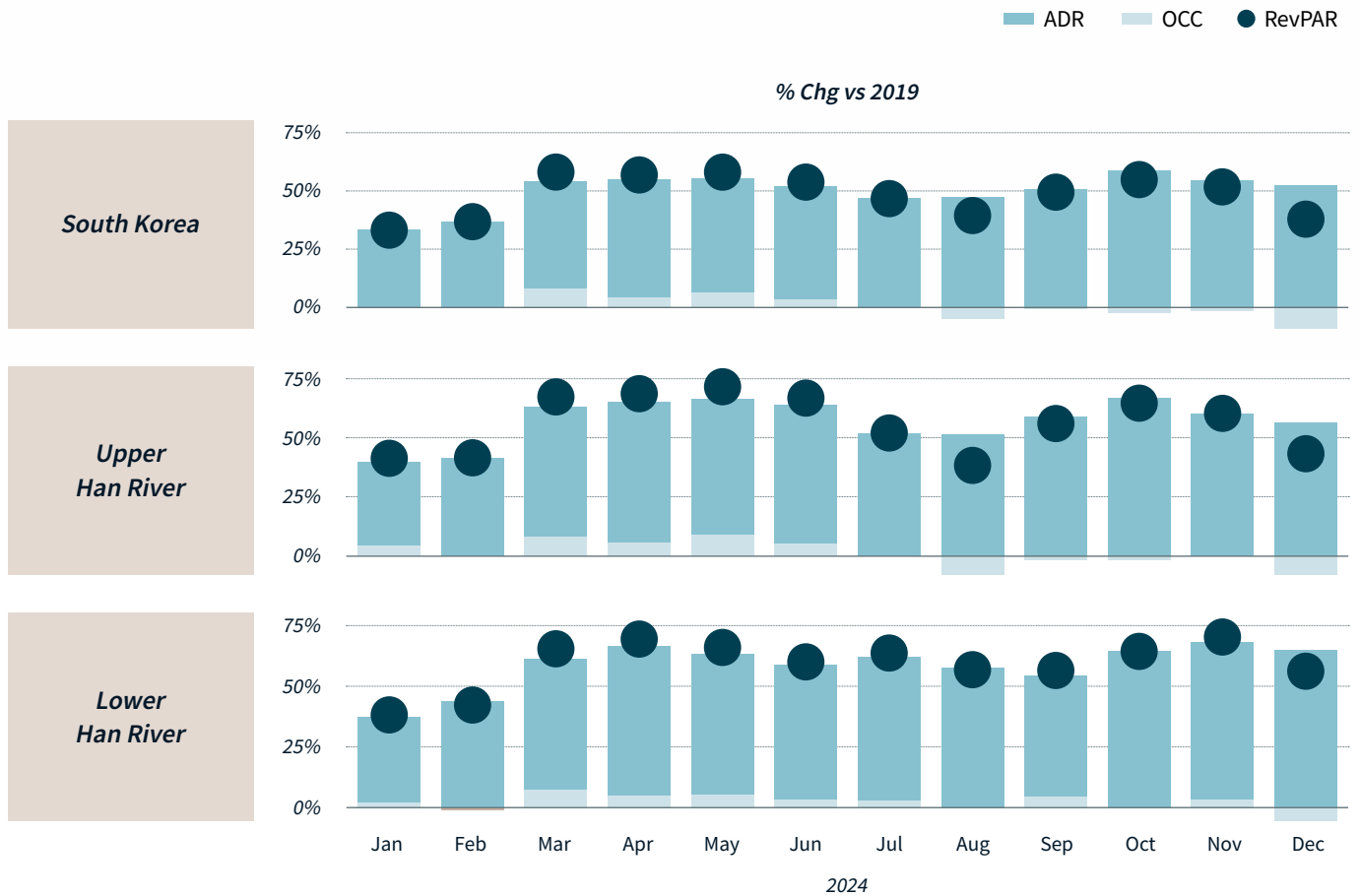
2025 | 2026 주요 전망

서울 시장은 외국인 방문 수요의 지속적인 회복과 우호적인 수요-공급 환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불안정한 정세의 영향은 2025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 요인에 그칠 것이며 하반기까지 모든 운영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럭셔리 호텔 시장의 경우, 과거 4년간의 지속적인 성장 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5% ~ 10%의 RevPAR 성장이 예상됨. 반면, 중저가 호텔 시장은 방문객 회복과 럭셔리와의 가격 격차 확대로 인해 10% ~ 20%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figure 3B 2024년 전년 동월 대비 서울 호텔 RevPAR 증감률



출처: STR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로 호텔의 객실부서 매출 성장은 지속될 것이나, 외부 방문객 비율이 높은 식음료 부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더 쉽게 노출되어 매출 위축이 예상된다.

국내 내수 경기에 더 의존하는 지방 숙박 시장들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축으로 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지방 시장의 예상되는 신규 공급은 해당 시장의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단계에서 시장의 성장률 및 개발 가능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해야 함.

Transactions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활발한 투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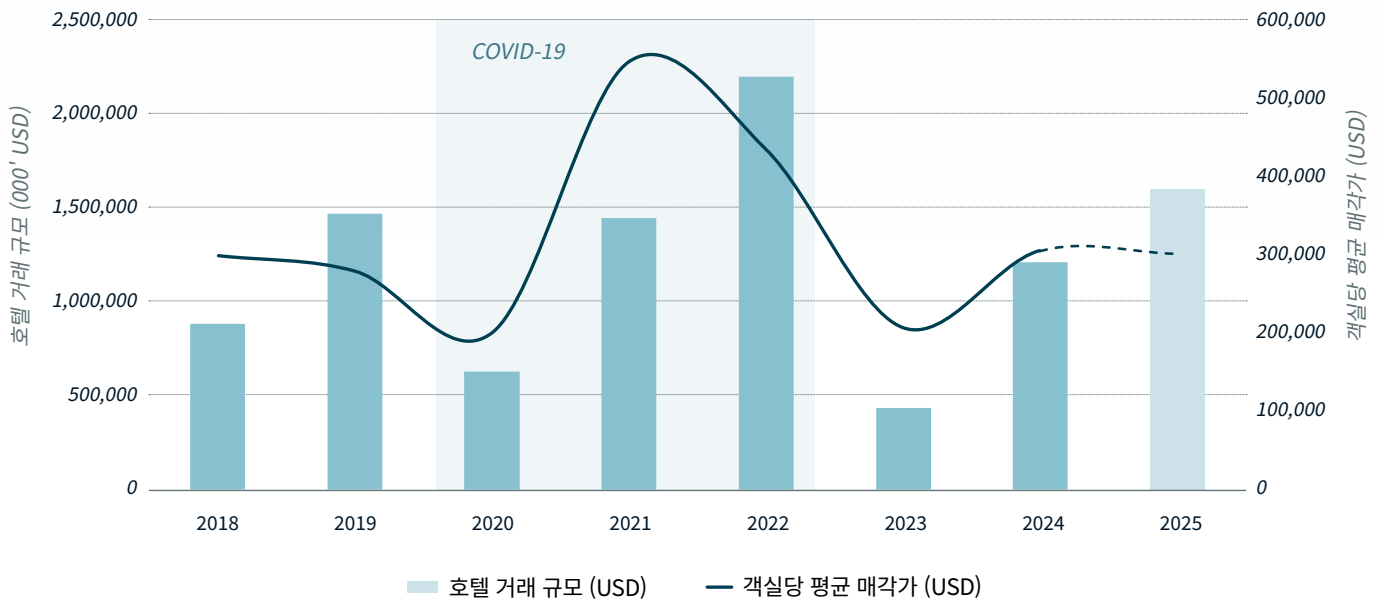
2024년 국내 호텔 투자시장의 연간 총 거래금액은 약 1조 6천 3백억 원으로 집계되어, 2023년 거래량의 약 3배를 넘고 코로나 이전 최대 거래금액을 기록한 2019년 연간 총 거래금액의 약 90%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함. 2024년 콘래드 서울과 2023년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성공적인 매각은 호텔 투자 시장의 활성화와 해외 투자 자본의 국내 우량 자산 매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시사함.

금년 거래 사례들은 주로 밸류어드 혹은 오퍼튜니스틱 포인트가 있는 자산들의 글로벌 투자자들 거래가 두드러짐. 신규 글로벌 럭셔리 호텔 브랜드들의 국내 시장 진출 및 해외 자금 투자 비중 확대는 한국 호텔 투자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활기를 더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팬데믹 이후 호텔 자산의 운영실적 변동성을 염두에 두어 보다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호텔 매입을 검토하는 투자자들의 프로필과 선호도의 변화는 거래되는 자산의 유형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팬데믹 이전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마스터리스 호텔 위주로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국내 투자기관 및 자본들은 수익 변동성이 낮으면서 꾸준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책임임대차 구조의 호텔을 선호함. 이러한 호텔들은 주로 3.5% ~ 4.5% 범위의 낮은 Cap. Rate로 거래됨 (2019년 기준 1.73조 원 또는 14억 7천만 달러).
- 팬데믹 동안에는 경영난에 빠진 국내 특급호텔들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 상승 및 높은 토지 가치에 힘입어 재개발 혹은 고급 주거용 아파트로 용도변경을 위해 매각되면서 거래량과 거래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함.
- 팬데믹 이후 해외 자본이 한국 호텔 시장에 투자를 재개하면서, 운영 실적 상승이나 브랜드 변경 등의 밸류어드 포인트가 있는 자산들의 거래가 두드러짐. 이러한 호텔들은 높은 운영 위험과 높은 금리 환경에서 거래되어 4.5% ~ 6.5% 범위의 더 높은 Cap. Rate로 거래됨.

figure 4A 연도별 국내 호텔 거래량



비고: 매각가 50억 이상의 호텔 거래사례 한정

출처: JLL, RCA

투자 구조 및 선호도의 변화는 거래 자산의 객실당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24년 서울에서 거래된 호텔의 평균 객실당 가격은 약 4억 7600만 원으로, 2019년의 4억 2400만 원에 비해 상승함. 이러한 객실당 가격 상승은 시장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지만, 2019년에 비해 2024년에 4성급 및 5성급 호텔의 거래 비율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보임.

Transactions

figure 4B 2024년 주요 호텔 거래 사례

 JLL : As the exclusive Advisor

자산명	지역	성급	객실 수	연면적 (sqm)	매각가 (KRW) ¹
신라스테이 광화문 (광화문 G타워 일부)	종로구	3	339	17,595	289,000,000,000
더 스테이트 선유	영등포구	4	160	9,318	47,400,000,000
티마크 그랜드 명동	중구	4	576	30,176	228,200,000,000
콘래드 서울 	영등포구	5	434	91,287	415,000,000,000
호텔 스카이파크 동대문	중구	2	254	8,244	47,000,000,000
L7 강남 (L7 강남타워 일부)	강남구	4	333	20,786	330,000,000,000
나인트리 명동 1	중구	3	144	5,626	75,000,000,000

주석: 1) 매각가 300억 원 이상 거래사례만 검토함 2) 마스터리스 (책임임대차) 3) 건물의 호텔 비중 매각가 기준으로 객실당 단가 추정

2025 | 2026 주요 전망

2025년에는 우수한 운영실적, 높은 투자 신뢰도, 그리고 금리 인하에 힘입어 약 2조 3천억 원(약 16억 달러) 규모의 호텔 거래가 예상됨. 또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2024년에 소진되지 못한 매물들의 유동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및 지방에 위치한 호텔들의 거래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나(예: L7 해운대, 파르나스 제주, 신라스테이 동탄), 현재 해외 자본의 유입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음.

현재 논의 중인 우량 자산들의 거래는 시장 상황과 투자자들의 전략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예상됨. 2025년에는 대규모 포트폴리오 거래보다는 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의 가격대를 가진 중소규모 호텔들이 거래량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2025년에도 해외 자본의 유입이 관측되며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벨류어드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을 중심으로 선별적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자산 특성에 따라 투자 심리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약화된 원화 가치로 인해 한국 투자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시장 가격 기대치에 맞추어 수익률 목표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더 많은 호텔 자산이 매물로 나오면서 가격 상승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객실당 단가	m ² 당 단가	매수자	매도자	M/L ²	용도변경
431,600,000 ³	10,628,000	Shinhan REIT	IGIS AMC	Y	N
296,300,000	5,087,000	Weaveliving	Hanseung Investment		N
396,200,000	7,562,000	Gravity AM (w/Angelo Gordon)	Hana Alternative AM	Y	N
956,200,000	4,546,000	ARA Asset Management	Brookfield Asset Management		N
185,000,000	5,701,000	HNWI	SK Networks		N
606,500,000 ³	9,716,000	Lotte REIT	Mastern Asset Management	Y	N
520,800,000	9,509,000	Innocence Co. Ltd.	Capstone Asset Management		N

출처: JLL

5 Conclusion

2025년 한국 호텔 투자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예상됨. 최근의 불안정한 정세와 부진한 국내 경기에도 불구하고, 호텔 부문의 안정적인 운영실적과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주요 투자 섹터로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다. 관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한정적인 공급은 국내외 자본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책임임대차계약이나 위탁 운영 계약에 구속되지 않은 한국 호텔들, 특히 밸류어드 포인트가 있는 자산들은 올해 유입되는 해외 자본의 주요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국내 호텔 투자 시장의 변화는 호텔 운영 및 관리에 추가적인 유동성과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임. 이는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과 컨셉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 국내 호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성 확대에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준 이사
Minjoon Kim

Vice President
Hotels & Hospitality Group
Minjoon.Kim@jll.com

니하트 에르칸
Nihat Ercan

CEO APAC
Hotels & Hospitality Group
Nihat.Ercan@jll.com

마리나 브라치아니
Marina Bracciani

Vice President, Research
Hotels & Hospitality Group
Marina.Bracciani@jll.com

잔더 나인스
Xander Nijns

Senior Managing Director
Hotels & Hospitality Group
Xander.Nijns@jll.com

김세연 대리
Kate Kim

Associate
Hotels & Hospitality Group
Kate.Kim@jll.com

JLL Korea HQ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원아이에프씨 32층
07326
32F One IFC, 10 Gukjegeumyung-ro,
Yeoungdeungpo-gu, Seoul, Korea
07326

T. 02 3704 8888
F. 02 6004 5928

About JLL

JLL(NYSE: JLL)은 2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및 투자 관리 기업으로서, 고객들이 다양한 상업용 오피스, 물류산업, 호텔, 주거 및 리테일 부동산을 매입매각, 건축, 임차 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연 매출 208억 달러를 기록하는 Fortune 500® 기업이며,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110,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며 로컬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부동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월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고객, 직원 및 지역 사회와 함께 'SEE A BRIGHTER WAYSM' 더 밝은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JLL은 Jones Lang LaSalle Incorporated의 브랜드 명칭 및 등록 상표입니다.

For over 200 years, JLL (NYSE: JLL), a leading global commercial real estate and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has helped clients buy, build, occupy, manage and invest in a variety of commercial, industrial, hotel, residential and retail properties. A Fortune 500® company with annual revenue of \$20.8 billion and operations in over 80 countries around the world, our more than 110,000 employees bring the power of a global platform combined with local expertise. Driven by our purpose to shape the future of real estate for a better world, we help our clients, people and communities SEE A BRIGHTER WAYSM. JLL is the brand name, and a registered trademark, of Jones Lang LaSalle Incorporated.